

맞벌이 자녀를 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 지원 양태(樣態)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f Childrearing by Grandmothers in Dual-Earner Families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안희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복지전공
교수 김선미***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Gwangju University
Ph. D. course An, Heelan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Kim, Seonmi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grandchild-rearing experience of grandmothers whose children are part of dual-earner couples. Twelve participants provided in-depth interview data that were analysed according to Spradely's ethnographic method. We present three main themes in our research, as well as ten smaller themes: (i) the grandchild-rearing mo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ult, the child, the grandchild, and the grandmother); (ii) the mode of grandchild-rearing support (residential, total weight of childrearing support, availability of a daycare center); (iii) the change in the grandmother's way of life (positive changes and negative changes). Finally, this study examines the integrity of the grandmother's identity as their productivity increases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C00003).

** 주저자 : 안희란(morkyang@naver.com)

*** 교신저자 : 김선미(yupy1005@hanmail.net)

through providing grandchild-rearing support. It also looks at the importance of governmental policies that support their burdens according to the level support they provide.

Key Words : 손자녀양육지원(grandchild-rearing support), 문화기술적 주제 분석(ethnographic theme analysis), 조모의 정체성(grandmother's identity).

I.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510만 맞벌이 가구 중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손자녀 육아를 맡은 가구가 절반(2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두 명 중 한 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것이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워킹맘 1,308명을 대상으로 누구에게 아이를 맡기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친정 부모나 시부모가 64.5%, 어린이집 43.5%, 베이비시터(출퇴근 또는 입주) 22.1%, 기타(친척·지인) 9.2% 순(복수응답)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00세 시대 대비 여성 노인의 가족 돌봄과 지원방안 연구(2012)’ 보고서에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이유로 자녀의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려고(78.3%),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고(35%) 등을 꼽았다. 그리고 손자녀들을 돌봐주는 양육 시간은 하루 평균 8.86시간이었다.

이렇듯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는 시기에 손자녀 양육지원을 할 것 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인생발달에서 하나의 과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고 황혼육아가 신평속도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지원을 선택한 경우, 돌봄 노동의 특성상 육아가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년의 이행기에는 자손들 세대와 인류의 미래에 관심을 두는 생산성(productivity)이, 노년기에는 자신의 생애를 큰 후회 없이 되돌아보고 보람을 느끼는 자아통합(integrity)이 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노년의 이행기 또는 노년기에 있는 할머니가 성인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육아를 다시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애주기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손자녀 양육지원은 노년의 발달과정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논의는 제한적인 수준이고, 최근 몇 년간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손자녀 양육지원이 노년의 발달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규명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할머니의 손자녀양육지원의 양태(樣態)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참여자 개인이 놓여 있는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지원이 노년의 발달과정에 주는 의미를 탐색하고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은 할아버지가 아닌 할머니의 양육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손자녀 양육지원이 돌봄노동의 일종임을 감안, 손자녀 양육지원의 중심에 할머니가 있는 반면, 할아버지는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할머니의 양육지원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노년의 이행기 또는 노년기에 있는 할머니가 성인기의 과업이라 할 수 있는 육아를 수행하는 양태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그들의 삶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성인·노인발달에 관한 이론과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성인·노인발달이론과 손자녀 양육지원

성인·노인발달의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은 규범적 위기 모델과 사건의 발생시기 모델이다. ‘규범적 위기 모델’의 대표적인 것이 Erikson의 이론인바, 이 모델은 인간발달을 연령에 따른 사회적·정서적 변화와 같은 일정한 단계로 설명한다. 즉, 인간발달에는 내재된 기초안(ground plan)이 있으며, 누구든지 그것을 따르므로 성인·노인발달의 경우에도 특정한 단계나 국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Erikson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일생을 통해 여덟 가지의 위기(또는 갈등상황)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영아기부터 중년기까지의 7단계의 위기를 잘 해결하게 되면 노년의 이행기에는 자기 세대의 쾌락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자손들 세대와 인류의 미래에 관심을 두는 생산성(productivity)을 형성, 자신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자신의 징표를 남기기 위해 미래 세대에 대한 돌봄을 실천하게 된다고 하였다. Erikson은 생산성(productivity)을 실천하는 직접적인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거나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을 꼽았다.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생애를 큰 후회 없이 되돌아보고 보람을 느끼는 자아통합감(integrity)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Erikson et al., 1986).

그러나 아동의 경우 연령은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그들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하지만, 성인·노년기에는 연령보다는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인간발달에 더 많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성인·노년기에 있어서 발달의 보편적 유형이 있다는 규범적 위기 모델은 비판받고 있다(Papalia & Feldman, 1989). 연령지향적인 규범적 위기 모델의 이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이 접근법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이 접근법이 주는 당위성의 메시지에 있다(정옥분, 2008)

반면 Neugarten이 주요 주창자인 ‘사건의 발생시기 모델’의 제안자들은 성인·노년기의 발달을 시간표가 아닌 개인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은 인생에서의 특정 사건들과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특정한 시기에 반응하여 발달한다고 한다(Neugarten & Neugarten, 1986).

Neugarten에 따르면 인생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규범적 사건과 비규범적 사건이 그것이다. 규범적 사건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인생사건으로 성인기의 결혼과 부모됨, 노년기의 사별과 은퇴가 그 예이다. 비규범적 사건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외상적 사고, 복권당첨 등이 그 예이다. 어떤 사건이 규범적인 사건인가 아닌가는 종종 사건의 발생 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보통 규범적인 사건들도 ‘제때를 벗어나면’ 비규범적인 것이 된다.

인생사건이 규범적이든 비규범적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개인이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다. 인생사건 접근법은 인생사건이 개인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인생 사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가족의 지원, 경제적 상태와 같은 중재요인과 인생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 인생의 단계,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Santrock, 19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범적 위기 모델이 주는 당위성의 메시지인 노년 이행기의 ‘생산성(productivity)’ 또는 노년기의 ‘통합성(integrity)’ 획득을 지향하는 한편, 사건의 발생시기 모델에 의하여 ‘인생에서 예상했던 순서와 리듬을 깨는 사건’인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태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할머니들이 처해 있는 각기 다른 맥락에 따라 심층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2. 손자녀 양육 지원 경험 관련 연구

손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국내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고 있다. 양적 연구는 주로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의 건강(백경훈, 2009), 심리적 안녕 내지 복지(배진희, 2007; 강유진, 2011), 우울(원서진, 2011), 양육스트레스(이지연·김원경·정경미, 2009; 오진아, 2006), 생활만족도(정재원·김문정, 2010)를 종속변수로 다루었다.

백경훈(2009)은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배진희(2007)는 손자녀 양육 조부모를 공동 양육 조부모와 주 양육 조부모로 분류, 두 집단의 심리적 안녕을 비교하였다. 배진희(2007)가 두 집단의 심리적 안녕을 비교한 결과 주양육 조부모가 공동 양육조부모보다 우울정도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진(2011)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돌봄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의 차이를 유발하지 않고, 돌봄 상황의 차이가 가져온 양육지각과 자원의 차이가 매개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원서진(2011)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간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모두 조부모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조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지연 외(2009)는 낮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지원 양육조모와 그 아동의 어머

니(부분 양육모), 낮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주 양육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원 양육조모는 주 양육모와 부분 양육모에 비해 유의하게 우울하였으나 양육 스트레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진아(2006)는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와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 모두 조모의 나이와 종교이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질과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재원과 김문정(2010)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와 양육하지 않는 조모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 조사하였는 바, 손자녀 양육 조모에서는 손자녀 양육가치, 건강상태,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생활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인 반면, 비양육 조모에서는 건강상태만 생활만족도의 유의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김문정, 2007; 김문정·정재원, 2010; 김은정·정순달,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이현수, 2007; 이은희·하주영·이정란·황은희, 2009)이나 대처방식(김문정·정재원, 2010)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할머니와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 경험을 탐색한 연구(이재림, 2013)가 있다.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을 지원하는 할머니는 손자녀를 키움으로 인한 활력, 손주의 재물이 주는 기쁨, 아이의 성장과 성인자녀의 기반 확립에 대한 보람, 뿌듯함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신체적 부담, 피로, 자유시간 부족, 외출의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성인자녀와의 갈등 등의 어려움도 경험한다. 즉 손자녀 양육 지원은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공존하고 있다.(김문정, 2007; 김문정·정재원, 2010; 김은정·정순달,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이현수, 2007; 이은희 외, 2009).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시 대처방식을

탐색한 질적 연구를 살펴보면 할머니들은 화 다스리기, 인정하면서 지원하기, 내 주장하기, 기쁨과 떳떳함 찾기, 내 방식대로 하기와 성인자녀에게 일임하기, 도움 받기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손자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할머니와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 경험을 탐색한 연구는 불가피하고도 만족스러운 의존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취업모와 자신에게 불리한 의존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하려고 현재의 또는 미래의 양육지원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려는 조모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재림, 2013).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의 건강(백경흔, 2009), 심리적 안녕 내지 복지(배진희, 2007; 장유진, 2011), 우울(원서진, 2011), 양육스트레스(이지연·김원경·정경미, 2009; 오진아, 2006), 생활만족도(정재원·김문정, 2010)를 종속변수로 다룬 이상의 양적 연구의 경우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변수와 그 상호관계만을 보려고 하는 방법론상의 제약으로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의도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고,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태나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피상적 접근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김문정, 2007; 김문정·정재원, 2010; 김은정·정순돌,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이현수, 2007; 이은희·하주영·이정란·황은희, 2009), 대처방식(김문정·정재원, 2010), 손자녀 양육지원을 제공하는 할머니와 양육지원을 받는 취업모 사이의 관계 경험(이재림, 2013)을 탐색한 이상의 질적 연구의 경우 거의 모든 연구가 현상학적 접근에 근거하여 손자녀 양육지원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의 내용을 다루거나 의사소통이론에 의해 할머니들의

양육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현상학적 접근이나 할머니들의 대처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의사소통 이론적 접근은 할머니들이 처해 있는 각기 다른 맥락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 처해 있는 할머니들의 현재 또는 과거의 손자녀 양육 지원양태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목적이 있다. 손자녀 양육지원 양태라는 행위자의 주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특히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각기 다른 손자녀 양육 지원 양태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의 포괄적인 기술(description)이라는 목적과 조응하는 Spradley의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손자녀 양육지원양태와 그에 따른 삶의 변화를 다루는 주제, 유형중심의 문화기술지를 산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선택, 활용하였다.

1. 연구참여자

인생사건 접근법은 인생사건이 개인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인생 사건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 가족의 지원, 경제적 상태와 같은 중재요인과 인생사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 인생의 단계, 그리고 사회역사적 맥락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 놓여 있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즉, 할머니의 연령, 할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의 지원 여부, 하루 중 양육의 시간, 양육기간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모집하고자 하였으며, 1년 이상 손자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경제 상태	관계	양육을 지원한 손자녀의 연령(만) 및 성별	돌본 손자녀 수	양육 기간
A	58	중	친	첫째 아들의 자녀 (3세, 여 / 1세, 남)	2명	3년
B	62	하	외	큰 딸의 자녀 (13세, 여 / 10세, 여) 작은 딸의 자녀 (6세, 남)	3명	9년 (4년째 쉬고있음)
C	69	상	외	딸의 자녀 (1년 8개월, 남)	1명	1년 7개월
D	75	중	친 /외	큰 딸의 자녀 (24세, 여 / 21세, 여 / 11세, 남) 큰 아들의 자녀 (19세, 여 / 16세, 남 / 14세, 남)	6명	15년(10년째 쉬고 있음)
E	85	상	친 /외	첫째 아들의 자녀 (29세, 남 / 26세, 여 / 21세, 남) 둘째 딸의 자녀 (19세, 여) 셋째 아들의 자녀 (16세, 남 / 14세, 남)	6명	25년(2년째 쉬고 있음)
F	62	상	외	딸의 자녀 (5세, 남 / 3세, 남)	2명	5년
G	60	상	외	딸의 자녀 (7세, 여)	1명	3년(2년4개월째 쉬고 있음)
H	67	하	외	셋째 딸의 자녀 (11세, 여 / 8세, 남)	2명	11년
I	67	하	친	큰 아들의 자녀 (9세, 남 / 7세, 여)	2명	9년
J	58	중	외	큰 딸의 자녀 (1년 6개월, 여)	1명	1년 6개월
K	57	중	외	딸의 자녀 (1년 3개월, 여)	1명	1년 3개월
L	64	중	친	큰 아들의 자녀 (1년 2개월, 남)	1명	1년 2개월

- 관계: 친(친할머니), 외(외할머니)

녀를 정기적으로 돌보고 있거나 돌보았던 할머니 12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양육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양육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할머니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면접은 2014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참여관찰을 병행하기 위해 주로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불가피한 경우에 근처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별로 면담시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은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의 3차원으로 구성된 사전인터뷰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두 녹음하였고, 녹취된 면접자료는 전사한 후 녹음내용과 전사본을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비구조화, 반구조화, 구조화의 3차원으로 구성된 질문은 아래와 같고, 질문목록을 따르며 면접을 실시하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면접을 깊이 하기 위한 대조 질문 반대질문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 비구조화된 질문

- 손자녀를 키우시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 손자녀를 키우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 반구조화된 질문

- 손자녀를 양육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성인자녀의) 부모로서의 역할기는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손자녀를 키우실 때 특별히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 성인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시나요?

■ 구조화된 질문

- 어르신의 연세는?
- 친할머니? 외할머니?
- 어르신의 현재 경제 상태는?
- 어르신이 배우자와의 관계(사별, 이별, 주말 부부)는?
- 키우신 손자녀의 연령은?
- 하루에 손자녀를 몇 시간 봐주시는지, 주 몇 일 봐주시는지?
- 손자녀를 몇 년간 봐주셨는지?
- 손자녀를 몇 명 봐주셨는지?
- 어르신의 손자녀 양육 관련 거주 형태는?
- 손자녀만 양육하시는지, 자녀세대의 살림도 봐주시는지?
- 손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도움(어린 이집, 유치원,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을 받고 계신지?
- 손자녀를 양육함으로 자녀세대에게서 용돈 내지 사례를 받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금액은? (생활비, 손자녀 간식비 등을 구분해서 주는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3세대 가구의 경우 주거비의 일부를 부담하는지 등)

자료분석 단계로는 첫째, 자료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었다. 둘째, 면접내용에서 할머니의 양육지원 양태와 그

로 인한 삶의 변화와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고 이러한 진술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묶어서 양육지원의 동기, 양육지원의 형태, 할머니의 삶의 변화로 축코딩하였다. 셋째, 의미단위를 통합하여 10개의 소주제와 3개의 대주제를 도출했다. 넷째, 도출한 주제를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Lincoln & Guba(1985)의 평가기준인 일관성, 사실적인 가치, 중립성, 적용성을 참고하여 연구의 질을 검증하였다. 일관성과 사실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공동연구자가 모든 과정을 공유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중립성을 지니기 위해 연구자는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에 대한 선이해, 가정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자녀 양육지원방식과 그에 관련된 삶의 변화 조사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연구의 깊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례 수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 모든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면접내용을 녹음하겠다는 것과 녹취된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비밀보장과 익명처리에 대해 서면으로 된 연구참여동의서 작성을 통해 알려주고 확인하였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연구참여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IV. 연구결과

열 두 명의 할머니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한 경험에 관한 전사록을 분석한 결과, 양육지원 동

기, 양육지원 형태, 양육지원 관련 주안점과 수고비 그리고 양육으로 인한 할머니의 삶의 변화라는 주요 주제를 발견하였는데, 각 주제별 하위 주제들은 모두 10개로 양육지원 동기에 세 개, 양육지원 형태에 세 개, 양육지원 관련 주안점과 수고비에 두 개, 할머니 삶의 변화에 두 개씩 해당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가정 양립, 손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혹은 스스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동기는 한 할머니의 동기에서 배타적이지 않았고, 중첩해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동기는 ‘맞벌이를 해야만 운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딸이나 며느리가 직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1. 양육지원 동기

맞벌이자녀를 둔 할머니들은 성인자녀의 일·

1) 성인자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친할머니의 경우 아들의 맞벌이 부부 남편으

<표 2> 연구결과 개요

주요 주제	주제별 하위 주제	세부 내용
양육지원 동기	성인자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요즘 시대
	손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타인에게 손자녀를 맡길 수는 없음
	나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후 준비가 안 되었거나 부족함
양육지원 형태	양육장소에 따른 양육형태	- 손자녀만 할머니 집으로 - 성인자녀까지 할머니 집으로 - 성인자녀가 할머니 집으로 매일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 할머니가 성인자녀 집으로 주말에만 출퇴근 - 할머니가 성인자녀집으로 매일 출퇴근 - 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집에 주중에만 거주, 주말에는 자택으로 복귀 - 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집에 매일 거주
	양육전담 정도에 따른 양육형태	전담양육 / 원조양육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양육형태	할머니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양가적 태도
주안점과 수고비	주안점	정서적 교감 / 건강한 먹거리 제공
	수고비	순수한 대가나 양육·가사소요비용 지급 여부, 장래에 성인자녀의 할머니에 대한 부양 계획 여부
양육으로 인한 할머니의 삶의 변화	부정적인 변화	- 양육장소에 따른 변화 (손자녀와 성인자녀의 별거로 인한문제 / 실질적 가사노동의 증가) - 양육부담에 따른 개인생활의 침해 (수면장애와 체력소진/ 개인생활의 축소 및 세상과의 단절 경험)
	긍정적인 변화	- 손자녀로 인한 생활의 활력 -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상승 -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 노년기 고립감 감소

로서의 가사·육아분담 몫을 덜어주려고(참여자 I), 외할머니들의 경우 딸의 직업 유지를 위해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고 있었다(참여자 B, C, D, E, F, G, H, J, K). 친할머니, 외할머니 모두 공통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는 할머니들이 손자녀 양육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참여자 A, B, C, D, E, H, I, J, K, L).

우리 아들을 생각하고 내가 키워주요. 여자들 요새 고생하요? 아들네들이 다 하지. 궁게 내가 ... 우리 며느리 ... 쓰레기 한 번 내가 못 갖고 나가게 해.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이 다하지. 안 그러겠어? (참여자 I)

딸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보는 것이지요. 딸의 인생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딸이 직장이 이러다 본게(시간강사) ... 딸이 그래도 빚인가를 해서 안전한 직장을 잡아야 사위보기도 좋고, 요즘은 또 둘이 벌어야 살고 ... (참여자 C)

(큰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직장을 나가니까 (손주양육은) 내 몫이라는 것을 나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둔 것 같아요. 요즘엔 혼자 벌여갖고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둘이 벌어야 돼.(참여자 A)

2) 손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할머니들은 남의 손에 자랄 손자녀가 걱정되어 손자녀 양육 지원을 자청하기도 하였다(참여자 F, G, D). 음식이나 정에 굶주리지 않도록 먹이고 정을 주고자 그리고 돌봐주는 타인의 악이나 태만에 의한 위험에서 지켜주려는 손주지킴이로서의 활약 동기이다.

... 우리 친구의 딸이 애를 맡겼어요. 애 봐 주는 사람한테 ... 근데 뭘(수면제) 타더래요, 우유에다. 그래 가지고 이 엄마(외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학교를 조기퇴직 해버리고 (외손녀를 돌보러 서울로) 갔잖아요. 이제 모임에서 그런 소릴 듣고 하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 제가 애

기를 그래 키워줘야 되겠다. (참여자 F)

... 우리 손녀가 엄마 정에 굶주리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있고, 그래 할머니 정이라도 듬뿍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남의 손에 키운 건 저는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참여자 G)

3) 나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손자녀를 돌봐주는 대가로 수고비(100만원-120만원)를 받고 있는 참여자는 D, E, H, I, K 있다. 참여자 D, E, K의 경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참여자 H, I의 경우 노후 준비가 안 되었거나 부족한 관계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소득 획득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참여자 H의 경우,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외손자녀를 돌보며 딸에게서 수고비 받는 이 생활이 훨씬 좋다고 하였다. “ 농사짓는 것보다 손주 보며 돈(월 100만원) 버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좋지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는 월 1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참여자 H)

2. 양육지원 형태

양육장소와 양육전담 정도, 어린이집 이용여부 가 양육지원의 형태를 구성하였다.

1) 양육 장소에 따른 양육형태

할머니들은 손자녀 양육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거주 양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와 성인자녀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로 크게 나뉘었다. 할머니 집에서 돌보는 경우로는 손자녀만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는 형, 성인자녀까지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형 그리고 성인자녀가 매일 아침 할머니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맡겼다가 퇴근하면서 찾아오는 형이 있었다. 성인자녀의 집에서 돌보는 경우로는 할머니가 (육아도우미가 안 오는) 주말

에만 출퇴근하는 형, 할머니가 매일 출퇴근하는 형, 할머니가 주중에 성인자녀의 집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자택으로 귀가하는 형, 할머니가 아예 성인자녀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형으로 나뉘었다. 각 연구참여자의 양육지원 관련 거주 형태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참여자의 양육지원 장소

참여자	양육지원 장소
A	①→⑥
B	①
C	⑤
D	①→⑥
E	②→①→②
F	②
G	①→⑥
H	⑥
I	②
J	②→③→④와⑤의 중간 정도
K	⑦
L	④

-장소: ① 손자녀만 할머니 집으로 ②성인자녀까지 할머니 집으로 ③성인자녀가 할머니 집으로 매일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 ④할머니가 성인자녀 집으로 주말에만 출퇴근 ⑤할머니가 성인자녀집으로 매일 출퇴근 ⑥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집에 주중에만 거주, 주말에는 자택으로 복귀 ⑦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집에 매일 거주

① 할머니 집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자녀만 할머니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는 경우는 주로 할머니가 성인자녀와 지리적으로 멀리 사는 경우였다. 손자녀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키운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손자녀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였다.

… 애(손녀)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주말이면 꼭 (딸에게 내려)오라고 했어요. 주말만큼은 엄마 사랑을 느끼게 해 줘야 된다. 공계 엄마(딸)도 엄마대로 고생하고 그랬겠죠. 근데 엄마가 오면은 그렇게 애가 좋아서 눈빛이 달라요. 할머니가 그렇게 하여튼 정을 쏟아서 키운다고 해도 오늘은 엄마 오는 날이다 하면은 애가 웬지 모르게 활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 아이고, 엄마가 저 멀리서 보이면은 막 뛰어가서 안기는 거 보면 (이 부분에서 참여자 G의 눈에 눈물이 맺힘) … (참여자 G)

… 즈그(손주)는 즈그 엄마 내일 온다 그러면 들이가 딱 참새 새끼 마냥 요 문 앞에 앉아 있어. ‘엄마 아직 멀었으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그 천륜이라 한 없이 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 그때 보면 미쳐. (이 부분에서 참여자 B의 눈에 눈물이 맺힘) … 그래 갖고 오면은, 갈 때 진짜 딸이 한없이 울더라니까(참여자 B)

손자녀와 함께 성인자녀까지 할머니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성인자녀가 결혼할 때부터 분가하지 않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참여자 E, I)와 결혼 당시에는 분가했으나 아이 양육을 위해 성인자녀가 아이와 함께 할머니 집으로 들어온 경우(참여자 E, F, J)가 있었다. 성인자녀까지 들어와 사는 형태는 할머니가 성인자녀의 가사일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반면, 성인자녀가 퇴근한 뒤에는 육아에서 해방되는 장점도 있었다. 특히 가사도우미를 사용하는 참여자 F의 경우, 손자녀 양육을 계기로 성인자녀와 합치게 된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 할 때부터 나와) 함께 산게. 우리 며느리는 병원에 나가야 하니까 내가 (손자녀를) 키웠지. 살림 다 해 주고 … 니그(손자녀)들 밤 8-10시까지지는 (할머니 방) 들어오지마. 통행금지. 그 대신 니그 엄마, 아버지를 좀 성가시게 하고 거실에서 놀다가 10시나 되면 들어와

서 잠자... (참여자 D)

...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엄마들한테 애(손자녀)들 적극적으로 키워주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행복하다니까요.(참여자 F)

참여자 J의 경우 처음에는 외손녀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다가 ‘잠 못 자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 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자신의 집에 외손녀를 맡겼다가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퇴근할 때 딸이 사위와 함께 와서 저녁식사까지 하고 가는 것이 ‘알뜰고 힘들어’ 딸에게 육아도우미를 구해서 딸 집에서 외손녀를 키우라고 하고, 지금은 종종 딸 집에 들러 육아도우미를 감독하는 정도의 육아지원을 하고 있었다.

② 성인자녀의 집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참여자 L은 육아도우미가 오지 않는 토요일만 할아버지와 함께 아들 집에 가서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참여자 C의 경우 결혼 당시부터 자신의 아파트 옆 동네 거주하는 딸의 외손자를 돌보기 위해 매일 딸의 집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참여자 A, G는 주중에는 성인자녀 집에서 거주하다가 주말에는 자택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보였다. 첫째 손자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전담양육을 하다가 둘째 손자가 태어나자 첫째 손자를 아들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보냈던 참여자 A의 경우 아들집과 자신의 집이 거리가 먼 관계로 첫째 손자의 어린이집 하원을 돕기 위해 결국 주중에는 아들집에서 거주하기로 한 결정(같은 시내 내의 ‘황혼의 주말부부’)을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유는 밤에는 아이를 성인자녀가 데리고 자서 자신이 숙면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자 A는 성인자녀와의 동거로 육아 이외의 가사일까지 하여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밤에 아이를 안 데리고 자는 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참여자 G의 경우 할아버지의 안녕과 자신의 체력소진을 고려하여 8개월만에 ‘황혼의 주말부부’ 생활을 그만두고 딸에게 육아도우미를 구하라고 하였다. 한편, 참여자 K는 외손녀를 돌보기 위해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왔는데 1년 3개월째 ‘할아버지와 기러기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이상과 같은 다양한 거주형태를 취하며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자신이 소진될 때에는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육지원 관련 거주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 양육전담 정도에 따른 양육형태

할머니들의 손자녀 양육은 가족이나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전담양육과 원조양육으로 나뉘었다. 각 연구참여자의 양육전담 정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연구참여자의 양육전담 정도

참여자	양육 비중(전담/원조)
A	전담→원조
B	전담
C	원조
D	전담
E	원조
F	원조*가사도우미 사용
G	전담*가사도우미 사용
H	원조
I	원조
J	전담→원조
K	전담
L	원조

성인자녀와 같은 시에 거주하나, 거리가 끝에서 끝이어서 자택에서 손녀를 돌봤고 “그 양반(할아버지)은 (애기 보는 거와) 전혀 무관”하다는

참여자 A(과거), 할아버지와 사별한 채 딸과 다른 시에 거주하며 자택에서 외손녀를 키웠던 참여자 B, 성인자녀와 다른 시의 자택에서 “(할아버지는) 남자라고 해서 술만 먹고, 집안일은 얹어졌는지 뒤집혀졌는지도 모른” 채 손자녀를 키운 참여자 D, “할아버지는 딱 (손주 돌보는) 한계가 한 시간”이고 성인자녀와 다른 시의 자택에서 외손녀를 키운 참여자 G, 그리고 “딸 편히 자라”고 밤에도 외손녀를 데리고 자는 황혼의 기러기부부인 참여자 K의 경우 ‘전담양육’을 하고 있었다.

반면, 자신의 집에 손녀를 데리고 가서 키우다가 주중에 아들 집에 들어와 키우게 되면서 퇴근 후에는 성인자녀가 손자녀를 돌본다는 참여자 A (현재), 딸이 시간강사인 참여자 C, “(할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밥(우유)을 막 먹여 재깁게 나가 나가도 안심”이라는 참여자 E, 육아를 위해 성인자녀가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살고, 퇴근 후에는 성인자녀가 손자녀를 돌본다는 참여자 F, 할머니가 주중에는 성인자녀의 집에, 주말에는 할아버지 집에 거주하고 주중에 퇴근 후에는 성인자녀가 손자녀를 돌본다는 참여자 H, 성인자녀가 결혼 당시부터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살고, 퇴근 후에는 성인자녀가 손자녀를 돌본다는 참여자 I, 종종 딸 집에 들러 육아도우미를 감독하는 정도의 육아지원을 하고 있는 참여자 J, 육아도우미가 오지 않는 토요일만 할아버지와 함께 아들 집에 가서 손자를 돌보고 있는 참여자 L은 ‘원조양육’을 하고 있었다.

한편 전담양육하는 참여자 G의 경우 할머니의 소진으로 딸이 둘째아를 계획하지 않는 반면, 원조양육하는 참여자 C 경우 딸의 둘째아 계획을 지지, 현재 딸이 둘째아를 임신하고 있었다. 이는 할머니의 추가 양육지원 의사 여부가 성인자녀의 출산률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 할머니들의 노년의 이행기의 ‘생산성(productivity)’ 획득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소진을 막는 정책적 지원

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둘째요? 지(딸)가 쉬면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큰애 같이 또 그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제가 건강이 작년에 무지 안 좋았거든요. 이제는 엄마(외할머니)한테 기대를 안 하죠. 저도 이제 키울 자신이 없고. (육아도우미) 아주머니가 키워도 또 할머니 댁은 있는 것 아닙니까? (참여자 G) (딸이 둘째 낳으면) 봐줘야지, 힘닿는데 봐줘야지요. (참여자 C)

또한 본 연구에서 할머니들은 소진을 일으키는 전담양육이 아니라면 손자를 양육하는 것이 손자녀, 성인자녀, 할머니 모두에게 좋다고 하였다.

저기 00 할머니는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보고 그런디 나는 이렇게 풀가동으로 본 게 힘들어 버리지. 공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애기 엄마가, 딸이, 며느리가 오면 저녁에만 지가 지새끼 챙겨도 볼만하겠대. (참여자 B)

저 같이 24시간 보는 것은 너무 힘들고, 밤에 만큼은 (성인자녀가) 데리고 가고 이러면 서로가 덜 힘들고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애한테도 정신 건강상 엄마품에서 자니까 좋을 것 같고, 부모한테도 좋을 것 같고, 조부모들도 좋을 것 같고 (참여자 G)

이는 노년기의 ‘통합성(integrity)’ 획득을 위해서는 조부모가 전담양육이 아닌 원조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복지적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에 따른 양육형태

할머니들은 이르면 손자녀가 17개월일 때 늦으면 5살일 때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할머니들의 태도는 양가적이었는데, “아이의 교육과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되고 ‘할

머니의 소진을 막을 수 있음'을 긍정적인 점으로 꼽았다. 반면, “집단생활로 인해 아이가 자주 아플 수 있다”는 점과 ‘제공되는 정서지원과 먹거리의 부실’을 우려하고 있었다.

… 과감하게 떼고 어린이집 보내야 돼. 그래야 배울 것도 있더라. 할머니하고 놀아도 발전이 없당개. 그리고 맨날 어른스러운 소리만 해 … ‘오메, 오메, 어찌아쓰까.’ 이런 말만 하고.(참여자 B)

(어린이집에) 아주 좋일은 안 맡겨도 저기 00 할머니가 잘하더라. 자기가 어디 모임가거나 그러면 갖다 맡기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풀가동으로 본 게 힘들어 버리지(참여자 B)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이 자꾸 아프잖아요. 집단 생활하는 애기들이 그러잖아요.(참여자 G)

그것을 3살 때 어린이집에 놔두니까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잊혀서 한 시간 있어서 가봤다. 그 자리에서 울고 그대로 섰더라고, 안 달래고…(참여자 B)

먹는 게 아무래도 저기(어린이집)서는 좀 시원찮아 할 것 같아. 그래서 신경써서 먹이는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내가 끼고 살아야 되겠고(참여자 A).

3. 양육지원 관련 주안점과 수고비

1) 주안점

양육장소, 양육전담 정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시기는 할머니들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반면, 양육지원시 두는 주안점은 ‘정서적 교감’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공통되었다. 이러한 주안점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던 때와 다른 것으로서 발달단계를 거쳐 성숙하고 성찰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① 정서적 교감

참여자들은 자신의 자녀를 키웠을 때는 중요성을 몰랐거나 실천하지 못했던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 제 애(자식)를 키우니까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을 못하고 키웠네요 … 애를 키우기 힘들다는 것보다도 집안일에 너무 메여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애하고 같이 있어줘야 할 그 소중한 시간에 뭐하러 그렇게 쫓고 닦고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멍청한 짓이예요 … 자식 농사도 때가 있는건데. 멍청했다 싶어요. 뭐가 우선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죠) (참여자 G)

내 새끼(자녀) 키울 때는 어렵고, 그리고 환경도 이제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 힘들잖아. 그리고 첫째 또 남편.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거나 하면은 이제 애한테 올인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 근데 이제 막바지 노년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애들(손주)한테 올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F)

② 건강한 먹거리 제공

참여자들은 직장 일이 바쁜 성인자녀라면 손자녀들에게 주었을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자신이 손수 만든 음식을 주었다.

내가 햄, 소세지 이런 거 안 먹고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 우리 큰 것이 그래.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를 좀 지켜주라’. 지켜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고. 우리 00(작은 것)는 할머니 술김치가 맛있다고. 내가 해 준 음식 먹으니까 애기들이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어.(참여자 I)

지금 키우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손주들을 맡기름)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딸)가

키우면은 얼마나 알아서 키우겠어요, 솔직히. 먹는 것도 맨날 ... 참 즈그들이 키웠으면 이렇게 먹는 거 해 가지고 세심하게 키웠겠어요? (참여자 F)

2) 수고비

참여자들은 손자녀를 돌봐주는 (순수한) 대가 (월 100만원-120만원)를 받는 경우(참여자 D, E, H, I, K)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었다. 손자녀를 돌봐주는 (순수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가사 관련 소요비용을 받는 경우(참여자 A, B, C, F)와 그마저도 받지 않는 경우(참여자 G, J)가 있었다. 참여자 F의 경우 가사도우미 비용과 생활비 일부를 딸이 내고 있는 반면, 참여자 G의 경우 가사도우미 비용도 할머니가 부담하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성인자녀가 자신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수고비를 받고 있었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성인자녀의 상황이 자신보다 더 어려울 경우에는 소요비용조차 받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순수한 수고비라면) 그건 좀 그렇지요. 받기가 좀. 아니, 이제 돈이 제가 없다고 하면 또 응당 받아야지요. 또 자녀들도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면 응당 줘야지요. 근디 이제 자녀들 형편이 나보다 더 못하니까 그것이 받기는 좀 그러죠. 그냥 지(딸)가 줘서 60만원은 받으니 평상 지들 속(장보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지.(참여자 C)

참여자 I의 경우 손자녀 양육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노후는 아들과 며느리가 책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참여자 B의 경우 9년간의 손자녀 전담 양육으로 건강이 나빠진데다가 최근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노후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참여자에 따라 손자녀 양육지

원이 성인자녀의 할머니에 대한 부양으로 이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 며느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하고 살아야 된단디 ... 엄마 내가 잘해 줄게. 그래 근디고 하면 니그 새끼(손자녀)들 내가 영원히 지켜주마.(참여자 I)

... 딴 얘기를 봐도 돈은 몇 푼 주잖아요. 지그들이 5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50만원 엄마가 쓴가요? 지그들 오면 반찬해 주지, 애기 옷 사주지 더 들어 가버려. 그때 당시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에) 너희(성인자녀)들 살아갈랑게 받지 않하제. 지금 같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받제. 없응게 ... (참여자 B)

4. 양육으로 인한 할머니의 삶의 변화

양육으로 인한 할머니의 삶의 변화는 선행연구에서도 분류되었듯이 부정적인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모두 포함하였다. 양육장소에 따른 변화로서 손자녀와 성인자녀의 별거로 인한 문제, 실질적 가사노동의 증가, 양육부담에 따른 개인생활의 침해로서 수면장애와 체력소진, 개인생활의 축소 및 세상과의 단절경험을 부정적인 변화로 꼽았다. 반면에 손자녀로 인한 생활의 활력과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상승 그리고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및 노년기 고립감 감소를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였다.

1) 부정적인 변화

① 양육장소에 따른 변화

i. 손자녀와 성인자녀의 별거로 인한 문제
손자녀만 할머니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는 경우 면접 참여자들은 ‘자신이 채워줄 수 없는 손자녀의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였다.

ii. 실질적 가사노동의 증가

성인자녀까지 할머니 집에 들어와 사는 형태 또는 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형태의 경우 면접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인자녀의 가사일 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② 양육부담에 따른 개인생활의 침해

i. 수면장애와 체력소진

전담양육을 하는 할머니의 경우 ‘숙면을 못 취하는 생활의 연속이 노인들에게 흔히 있는 수면 장애를 더욱 악화시켜 극도의 체력 소진’을 경험했다.

… 한 하루 밤에 다섯 번 내지 여섯 번을 제가 일어나요. 이제 애 이불을 찾느라 하고, 불편한 점이 없는가, 굴러다니면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가. 근데 애가 밤에 자다가 잠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2, 3시간은 잠을 안 자버리는 거예요. … (외손녀를 딸에게) 데려다 주는데 제가 여기서 갈 때는 ‘애가 엄마하고 적응하더라도 며칠 동안은 할머니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3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바로 나왔어요. 애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못 가게 할까봐서. 그때 절박함이 이제 손녀보다도 ‘아, 내가 하루 밤이라도 편하게 잠을 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날로 제가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날 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죠. 근데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그 (불면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 (내 집으로 데리고 가) 24시간 봤죠. 엄청 힘들어. 그니까 하루 종일 애기를 데리고 있으면 오후 되면은 피로가 딱 와요. … 애가 깨우고 그러면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 나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엄마들은 바로 잘거야 애기가 깨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잠이 항상 너무 부족하니까. 얼굴이 너무 말

랐어(참여자 A)

ii. 개인생활의 축소 및 세상과의 단절경험

전담양육을 하는 할머니의 경우 “발이 묶임”, “내 생활이 없어짐”, “세상과 단절”이라는 어러움을 토로했다.

이제 발을 묶었지 … 내 생활이 없어져버렸어. 전에는 자유로웠지, 일단. 나 가고 싶은데 가고, 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뭐, 고스톱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전혀 내 생활이 없잖아요.(참여자 A)

친구들한테 그래요. ‘노이들 애기 키우기 전에 많이 놀아라.’ 애들 키우는 동안에는 하여튼 세상과 단절이라고 할까요. 친구들 모임에도 거의 못 나갔어요. (참여자 G)

2) 긍정적인 변화

① 손자녀로 인한 생활의 활력

전담양육을 하는 참여자들조차도 손자녀 양육 지원으로 인해 ‘집안에 활력이 돔’이라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 이 나이가 되면은요 집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 이 애를 키운다는 건 집에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애로 인해서 항상 화젯거리가 풍부하고 기쁨이 있어요. … 정말로 노년의 부부한테 이걸 정말로 축복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힘든 일도 있지만은 엄청 또 기쁜 일도 많고 그러지요. 그래서 키워요. 항상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참여자 G)

개 말 한 마디에 박수치고, 집안이 완전히 축제분위기지. 말 한 마디 한 마디 할 때마다 이모들도 박수치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박수치고, 애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집안이 … 그

런데 개만 없으면 웃을 일도 하나도 없고 각자 방에 있어 가지고 안 나와. (참여자 J)

②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상승

전담양육으로 소진을 경험한 참여자들조차도 손자녀 양육지원으로 인해 ‘새 식구인 며느리, 사위와 가까워 질 수 있다’는 점을 좋게 평가하였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바쁘게 사는데 ... 애(손자녀)들 키우면서 이렇게 ... 새로 맞은 사람들이 뭐 사위라든지 며느리하고 더 가깝게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 점은 있어요.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 애를 맡기니까 조금은 더 살갑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참여자 G)

③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양육지원을 해 준 손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참여자들은 아래에 쓴 참여자 D의 표현과 같이 예외없이 ‘키워준 손자녀가 안 키운 손자녀보다 나를 훨씬 따라’ 키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키운 애들은 서슴없이 덤벼들어서 포옹을 하는데 안 키운 애들은 좀 서먹거리더라고. 그게 이제 ‘아, 이게 키운 정이 이렇게 크구나.’ 한 거를 느끼게 애들이 만들었더라고. (참여자D)

④ 노년기 고립감 감소

참여자들은 손자녀 양육 지원을 계기로 성인자녀와 교류함에 따라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딸이 옆에서 안 산다면 내가 외롭고 그런 거 느낄랑가도 몰라요 ... 내가 보기에는 ... 어른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또 자식 된 입장에서는 애들도 맡기기가 좋은게 ...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 병원도 어찌 늙어갔고 혼자 간다는 것은 좀 그러대요. 병원 가면은 내 나이 때 되면 그래도 젊은 애기하고 딸이든 며느리든지 같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는 (딸이) 배불러 갖고도 하여

튼 간에 엄마 병원 땡기고 그랬어요. 딸이 옆에 있으니까 좋죠.

...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 저는 엄마들한테 애(손자녀)들 적극적으로 키워주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 정말 너무 행복하니까요.(참여자 F)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논의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하여 손자녀양육지원의 동기, 복잡한 구성요소를 가지는 양육형태, 양육지원 관련 주안점과 수고비 그리고 손자녀양육으로 인한 할머니 삶의 변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원조양육을 하는 참여자에 비해 전담양육을 하는 참여자가 부정적인 삶의 변화를 호소하였다. 이는 주양육 조부모가 공동 양육조부모보다 우울정도가 높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배진희(2007)의 연구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시간과 손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모두 조부모의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조부모의 우울감이 증가한다는 원서진(2011)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전담양육을 하는 참여자들조차도 공통적으로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생활의 활력’, ‘성인자녀와의 친밀감 상승’, ‘손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손자녀 양육지원을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제하고, 할머니의 건강(백경훈, 2009), 심리적 안녕 내지 복지(배진희, 2007; 강유진, 2011), 우울(원서진, 2011), 양육스트레스(이지연 외., 2009; 오진아, 2006), 생활만족도(정

재원·김문정, 2010)를 종속변수로 다룬 기존의 양적 연구의 전체는 제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의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김문정, 2007; 김문정·정재원, 2010; 김은정·정순돌, 2011; 김은주·서영희, 2007; 이현수, 2007; 이은희 외, 2009)의 결과는 양육을 지원하는 할머니는 활력, 기쁨, 보람, 뿌듯함 등 긍정적인 경험도 하지만 신체적 부담, 피로, 자유시간 부족, 외출의 제약, 심리적 스트레스, 성인 자녀와의 갈등 등의 어려움도 경험한다는 평면적인 고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할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양육지원으로 인해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처해 있는 맥락(양육지원 장소가 어디인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양육전담 정도)에 따라 부정적 경험이 더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성인·노인발달 이론과 관련하여 규범적 위기 모델이 주는 당위성의 메시지인 노년의 이행기의 ‘생산성(productivity)’ 또는 노년기의 ‘통합성(integrity)’ 획득을 지향하는 한편, 사건의 발생시기 모델에 의하여 ‘인생에서 예상했던 순서와 리듬을 깨는 사건’인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태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를 각자 처해 있는 다른 맥락에 따라 심층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그 결과 할머니들의 노년의 이행기의 ‘생산성(productivity)’ 과 노년기의 ‘통합성(integrity)’ 획득을 위해서는 할머니가 전담양육이 아닌 원조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복지적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1) 할머니들의 원조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

노년의 이행기의 ‘생산성(productivity)’과 노년기의 ‘통합성(integrity)’ 획득을 위해서는 할머니

가 전담양육이 아닌 원조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바,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일·가정 양립정책 활성화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통해 성인자녀들이 할머니들과 함께 양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집단생활로 인해 아이가 자주 아플 수 있다”는 점과 ‘제공되는 정서지원과 먹거리의 부실’ 등 할머니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육시설의 신뢰도를 제고, 조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노년기의 심신에 적절한 정도로 양육을 지원하며 개인적인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주돌보미 수당

본 연구에서 할머니들은 성인자녀가 자신보다 월등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는 수고비를 받고 있었지만 자신과 비슷하거나 성인자녀의 상황이 자신보다 더 어려울 경우에는 소요비용조차 받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서울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주돌보미 수당은 육아에 있어 친족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자 조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손주돌보미 제도의 경우 손주들을 돌보는 할머니에게 최대 40시간, 시간당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원래 국가에서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를 서초구 관내 특성에 맞게 변화시킨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서초구의 출산율은 이 제도의 도입 전보다 17.5% 증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서울시 평균 증가율(4.1%)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손자녀돌보미’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광주시는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

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친·외조부모에게 월 10만~25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주간조선, 2014).

손주돌보미 수당에 대해 “조모의 양육지원에 대한 취업모의 기대나 의존적 태도를 자연스럽게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모의 부담감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취업모 부부가 조모에게 전달하는 금전적 보상은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감사의 표현 등 심적 보상의 상징적 기능을 했다는 점, 금전적 보상의 주체가 성인자녀에서 정부로 바뀌게 될 경우 성인 자녀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조모가 경험하는 심적 보상은 사라지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심적 보상이 감소하게 되면 정책적 의도와는 달리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조모의 동기는 더욱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재림, 2013).

그러나 유급 육아도우미의 평균적인 급여액을 감안할 때 조부모가 정부에서 20~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성인자녀가 조부모의 노고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아 조부모의 심적 보상이 사라지거나 최소화될 여지는 적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할머니의 동기는 주로 성인자녀나 손자녀의 안녕이었고, 수고비를 받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도 있었다. 따라서 조부모가 정부에서 손주돌보미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손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조모의 동기가 악화될 여지도 적다.

또한 이재림(2013)에 의하면 “노부모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현금을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의 가족문화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성인 자녀가 금전적 보상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라고 하였는데, 손주돌보미 수당의 취지는 손자녀 양육 지원을 한 할머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맞벌이증가에 따른 돌봄공백을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하여 손자녀 양육지원을 장려하는 것이지, 성인 자녀의 금전적 보상을 중단하기 위함은 아니다.

성인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할머니에게 수고비를 못 드리는 경우 또는 성인자녀가 수고비를 제안했어도, 할머니가 성인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절한 경우 손주돌보미 수당은 가사·양육 소요비용조차도 본인들이 부담하는 조부모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일 것이다.

3) 총액제한의 유연급여제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보미, (조부모가 안 계시거나 편찮으셔서) 조부모양육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맞벌이 가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적으로 모든 맞벌이 가정에 ‘총액제한의 유연급여제(flexible benefits)’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연급여제(flexible benefits)는 본래 업무생활의 질 향상(Quality of Working Life) 운동의 일환으로 기관이 급여 항목들을 늘여놓고 직원들이 개인별 한도의 총액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휴가일수, 현금, 탁아서비스라는 급여들 가운데 직원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들을 스스로 조합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조직으로서는 한정된 급여 총액의 한도 내에서 직원 각자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극대화된 개별 직원 효용성들의 총합에 의해 조직 전체의 자원 활용에 대한 효용성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본다(김영중, 2010).

일정 연령 이하의 영유아 양육 가정에 유연급여제(flexible benefits)를 적용, 장래생산인구를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부모, 조부모이든) 각 가정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현금급여(수당), 현물급여(가사도우미 파견, 육아도우미 파견, 방문보육교사 등)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만 형평성과 국가 재정을 고려, 총액은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제가 친구들에게 손주를 키워줄 것을 적극 권장했더니) 한 친구가 ‘너는 키울만하다.’ 그래서 ‘왜 내가 키울만하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하고는 너는 틀리다. 다른 애들은 애부터서 가사일까지 모든 걸 도맡아서 한다. 너는 집안일 안하지(가사도우미가 하지), 애기만 오로지 보지 않느냐. 근데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다.’ (참여자 F)

3.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인자녀의 직업적 지위를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할머니들의 다른 맥락을 고려하다보니, 성인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중 이상으로 편중되었다. 어쩌면 성인자녀의 직업적 지위가 그들의 경력을 지속하게 하여 손자녀양육지원의 필요를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는 잠정적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한 편으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인자녀의 직업적 지위라는 맥락이 할머니의 손자녀 양육지원의 양태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려 내기를 기대한다. 이런 맥락에서 서초구와 광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손주돌봄지원사업의 수혜자인 조모들의 경험을 조사한다면 이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한 계층까지 연구참여자로 아우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양육지원 중인 할머니들을 주요 연구참여자로 삼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양육지원 후 시간이 흘러 자신의 과거 양육지원 경험에 대해 어떻게 회고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과거에 장기간 양육지원을 하였다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할머니 3명을 참여시켰다. 참여자 B(9년간 양육지원, 4년째 쉬고 있음), 참여자 D(15년간 양육지원, 10년째 쉬고 있음), 참여자 E(25년간 양육지원, 2년째 쉬고 있음)가 그들이다. 후

속 연구에서는 손자녀 양육지원을 하는 할머니들을 장기간에 걸쳐 생애사적·중단적 추적을 함으로써 양육경험이 인생을 관통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손자녀 양육지원 경험이 없는 할머니들의 삶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찰하는 것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중(2010). 사회복지행정. 서울 : 학지사.
- 2) 정옥분(2008).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3) 강유진(2011). 손자녀 돌봄과 조부모의 심리적 복지 : 돌봄 상황, 양육지각, 자원 의 상호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4(1), 73-97.
- 4) 김문정(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양육부담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37(6), 914-923.
- 5) 김문정·정재원(2010). 공동양육 조모의 손자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경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37-153.
- 6) 김은정·정순돌(2011). 손자녀 대리양육 조모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 취업모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1, 177-213.
- 7) 김은주·서영희(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실제에 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8) 배진희(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양육형 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9) 백경흔(2009). 손자녀 돌봄 경험이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중심으로 여성건강 : 다학제적 접근, 10(2), 87-112.
- 10) 오진아(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 12(3), 368-376.
- 11) 이은희·하주영·이정란·황은희 (2009). 맞

- 별이 자녀를 둔 조모의 손자(녀) 돌봄 경험. 질적연구, 10(1), 1-13 .
- 12) 이지연·김원경·정경미(2009). 지원 양육조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대처,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 : 주 양육모, 부분 양육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29(2), 441-458.
- 13) 이재림(2013). 손자녀 양육지원에 따른 조모와 취업모의 관계 경험: 세대 간 지원 제공 및 수혜의 의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1-24.
- 14) 이현수(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할머니의 심리적 체험연구. 질적연구, 8(1), 67-78.
- 15) 원서진(2011).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3세대 가족과 비3세대 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33-56.
- 16) 정재원·김문정(2010). 손자녀 양육 여부에 따른 조모의 생활만족도 및 영향요인.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6(3), 288-296.
- 17) Erikson, E. H. ,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 Norton.
- 18) Lincoln, Yvonna. & Guba, Egon.(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19) Neugarten, B. L . & Neugarten, D. A.(1986). Changing meaning of age in the aging society. In A. Pifer & L. Bronte(Eds.), Our aging society: Paradox and promise. New York: Norton.
- 20)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 (1989). Human development. New York: McGraw-Hill.
- 21) Santrock, J. W.(1997). Life-span development (6th ed.). McGraw-Hill.
- 22) 주간조선(2014). 손주돌보미 서초구가 하면 유행이 된다. 2014. 3. 4.
- 23) 삼성경제연구소(2010). 2010년 국내 맞벌이 부부 대상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 24) 통계청(2012). 2012년 맞벌이가구 통계 집계 결과. 통계청.
- 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 100세 시대 대비 여성노인의 가족 돌봄과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투 고 일 : 2014년 6월 12일
- 심 사 일 : 2014년 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14년 6월 20일